

## 사건과 계속 마주해 온 한국 여성들

여러분은 ‘n 번방 사건’을 아십니까? 이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통신 앱을 통해 과금제 채팅방이 개설되며 26 만명 정도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착취물(사진·영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한국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폭력 사건입니다. 2020 년 2 월 이후 가해자가 다수 검거되어 주범격 2 명은 모두 30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해자 검거의 배경에는 “피해자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사건에 계속 마주해 온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은 ‘불<sup>1</sup>’과 ‘단’이라는 통칭을 사용하며 채팅방에 잠입해 범인의 증거를 모아 사건을 고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건이 공론화 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여성이 괴로운 시간을 견디고 피해를 세상에 알려서 사건의 취재나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보도 기사가 나오자 기사를 본 여성이 불법 채팅을 운영 회사에 통보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ReSET(리셋)’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ReSET’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법률 정비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sup>2</sup>’을 실시하고 이것에 20 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도 잇따라서 경찰은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 년에는 디지털 성폭력의 온상이 되어 있었던 당시 한국 최대의 불법 성인용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 시킨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큰 역할을 한 것도 여성들에 의한 ‘메갈리아’라는 단체였습니다. ‘메갈리아’는 원래 인터넷 상에 넘치는 미소지니(여성 혐오) 언설에 대항하기 위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젊은 여성들이

모인 온라인 페미니스트 단체입니다. 그녀들은 인터넷 상의 미소지니와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 제도화되기 전부터 스스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는 일본 영상도 많이 발견되었고 한국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시킨 행위도 일본 성인용 비디오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성인용 비디오 출연을 원하지 않았다는 여성들의 고발에 의해서 일본의 성인용 비디오가 실은 여성들의 침묵 위에 성립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의 현실과 완전히 연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이쿠라 에리이 (고베여자대학교)

---

<sup>1</sup> ‘불’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진보계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요청을 받아 동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며 박지현이라는 실명을 밝혀 선거 활동을 했습니다. 선거 패배 후에는 동당의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기용되어 당 재건의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sup>2</sup>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 하인 2017년 8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문을 올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30일 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법률의 제정·정비에 관해서는 2020년 4월 29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월 20일에 전기통신 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총칭하여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 【参考文献・資料】

- イ・ミンギョン著、尹怡景訳「interview ハン・セツピョル (DSO)」、タバックス編『韓国フェミニズムと私たち』タバックス、2019年
- キム・インミョンほか著、大島史子訳、李美淑監修、北原みのり解説『根のないフェミニズム—フェミサイドに立ち向かったメガリアたち』アジュマ、2021年
- チェ・ジンソン監督「サイバー地獄—n番部屋 ネット犯罪を暴く」『Netflix』2022年、  
<https://www.netflix.com/title/81354041> (2022年10月9日最終アクセス)
- 趙慶喜「韓国における女性嫌悪と情動の政治」『社会情報学』6(3)、2018年、35-47頁
- チョン・ミギョン著、大島史子訳、李美淑監修、北原みのり解説『ハヨンガ—ハーイ、おこづかいデートしない?』アジュマ、2021年
- 古橋綾「現代韓国フェミニズム 第5回 性搾取問題として性売買を見つめる・下」『Posse』47、2021年、206-213頁
- ヘオラギ、チャ・ウンハス、イ・ハンギ著、イ・ジョンヒョ訳「韓国でデジタル性暴力と闘う—DSOの活動から」、ぱっぷす編『ポルノ被害の声を聞く—デジタル性暴力と#MeToo』岩波書店、2022年
- NHK「アナザーストーリーズ 運命の分岐点『追跡 デジタル性犯罪の闇〜韓国 N番部屋事件〜』」『NHK オンデマンド』2022年3月22日放送、<https://www.nhk-ondemand.jp/goods/G2022119174SA000/> (2022年10月9日最終アクセス)
- Sangmi Cha「凶悪な性犯罪組織を暴いた26歳女性、韓国の既成政治と対決」『Bloomberg』2022年5月31日、<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2-05-31/RCQL1UT0G1KW01> (2022年10月9日最終アクセス)